

“세월호법, 유가족 참여위해 막판까지 최선”

새정치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광주 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최대 쟁점인 ‘유가족들의 특검 후보군 추천’과 관련 “유가족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호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있어 특검 후보 추천 등 유가족들의 참여가 최대 쟁점이다.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하니 인위적으로 어느 것이나 말하기 어렵다. 유가족들의 직간접적인 참여 방법을 협상을 통해 마련하겠다.

-새누리당이 입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유족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유족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친노(친노부환) 진영의 지지로 당선됐다는 평가다.

▲나는 친노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다고 친노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 당직 인선에서도 계파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굳이 친문(친 문재인)이라고 한다면 부인하지 않겠다.

-친노 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일부 친노 인사들의 폐쇄성이 문제다. 보다 개



호남정치력 복원 힘 합쳐야 연내 개헌특위 출범 구체화

방하고 열어야 한다.

-비대위에서의 중도 진영 인사들의 추가 참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에 참여를 권유하고 있으며 문을 열어놓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한 입장은

▲유지돼야 한다. 이는 원칙이다.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호남 정치력 복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 정치 지형에서 호남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이다. 호남 정치력의 복원은 소통과 화합이 근간이다. 힘을 합해 정부에 예산이나 정책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정가에서 차기 총선을 앞두고 중진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필수적이다. 그동안 물갈이 등을 통해 수도 없이 정치인을 교체했지만 나아진 것은 별로 없다. 권력구조,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에서 호남의 현실은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이다.

▲이미 개헌특위 구성을 위해 여야 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냈다. 여기에 230여명에 이르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개헌 특위 구성에 나설 것이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 개헌이 구체화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정면전을 선포했다. 대표적 적폐는 무엇이며 해소 방법은.

▲불통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유신정권, 독재정권도 다 국민의 힘으로 무너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세월호 3법’ TF 금주부터 가동키로

여야는 14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방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를 위한 TF를 각각 구성해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박재현 정책위의장, 김재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 정례 회동을 열어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격정하고 계신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게 해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많이 준비하고 있으며, 박차를 가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법안도 속도감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 등도 생산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우 원내대표는 “맹목적으로 생떼를 쓰는 것은 질책이며, 근거와 대안을 갖고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가 잊혀지고 있는데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여야

가 세월호 법을 처리하자”고 강조한 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이번 주말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당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위한 TF위원으로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부터 TF 가동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방언법 입법을 위한 TF도 각각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위원 선임은 금주 중 완료하여 TF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사이버 검열’ 화력집중...정국 주도권 잡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 중반전 ‘핫이슈’로 부상한 정부의 사이버 검열을 지렛대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온라인 사찰 의혹을 세월호 문제까지 연결,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의 각종 모임에도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정국

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SNS 검열 파문으로 국민 150만여명이 해외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감행함으로써 국내 IT산업이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야당에 힘을 실어 준다. 이를 반영하듯 14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대대적인 대외공세를 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회의에서 “80년대 신군부 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하는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정부를 맹공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낸 보도자료 보면 ‘수시로 포탈을 모니터링하겠다. 허위사실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사이버 검열 파문 확산을 위해 네이버 밴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박주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미정산 보조 사업 1581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3년도에 지원한 보조사업 중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미정산 사업이 25개 사업 약 1581억원에 달한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정산이 대단히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미정산 사업 상세 내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15개 사업에서 약 1115억원이 미정산됐고, 국민생활체육회의 4개 사업 약 430억원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지원해놓고는 강제력이 없다며 사후 정산조차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무안공항 하루 4대 뜨는데 직원은 31명”

지방 중소공항의 항공기 1편당 직원 숫자가 제주·김포·김해공항 등 ‘빅3’의 6배에 이르러 인력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광주·청주·무안·양양·여수·울산·사천·포항·군산·원주 등 11개 지방공항의 항공기 1편당 직원 수는 평균 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대가 운항하는 무안공항에 31명이 근무해 편당 직원 수 1위(7.7명)를 차지했고, 양양공항(4.7명)과 원주공항(4.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하루 200대 이상의 항공기가 드나드는 제주공항(388편), 김포공항(377편), 김해공항(216편)의 경우에는 편당 직원 수가 평균 0.5명으로 나머지 지방공항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또 3대 공항이 지난해 전후 흑자(김포 1천199억원, 김해 800억원, 제주 508억원)를 낸 반면, 울산공항(92억원 적자)을 비롯한 11개 공항은 예외없이 적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대철 “노력하다 안되면 신당 창당해야”

새정치 원내의 비주류 ‘구당구국’ 모임…“강경파 폐해 크다”

일각선 “중도 입지 좁힌다” 비판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의 비주류로 이뤄진 ‘구당구국(救黨救國)’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대철 상임고문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 등 정 고문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중도 및 비주류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 고문은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분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운동권 출신의 강경파가 문을 죄지우지하는 상황을 ‘폐해’로 꼽으면서 “당을 끝까지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신당 창당의 모습을 띠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이너스적으로 신당을 만들면 둘로 갈라지고 좋지 않다”면서도 “신당적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규합해야 한다. 새로운 신당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운동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

덕적 우월성에 파문해 강경론으로 나오고 안정된 리더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폐해”라며 “중도와 중도 우파까지 끌어들이 수 있도록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고는 영원히 야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명숙 이해찬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사람 대부분 운동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운동권적 시각을 가진 강경파가 계속 주류로 남아 있다면 총·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지금 이 모습을 갖고는 쉽게 정권을 창출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계에서 퇴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역할론’과 관련,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 두번씩 하고 그러는데 ‘너무 끌어들이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정당을 잘 만들어가면서 필요에 의해 징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후의임)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인정원 경쟁가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매각가액상당 후 경쟁 현장 당사 모임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5층 참조은 인과
4층 한길 통증 의학과
2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이국

임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01 부동산 담보대출 최저 3.5%~ 이퍼, 주택, 상가, 공장, 내대지, 원룸, 전·답, 모빌 대출한도 : 최고 60%까지 신용보증 상환방법 : 영입금 면제 / 대환유대 상환기간 : 일시상환 (이퍼·스톡상 가능)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인감도장, 신용증	02 햇살론대출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상업자금 최고 5천만원 대출자격 : 신용보증금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최소회차 및 금리지 대출한도 :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상환방법 : 영입금 최고 5천만원 대출기간 : 연 8.01% (위차별) / 0.90% (금리) 모음 : 대출금리 0.95% (자영업자), 0.90% (근로자)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대출금리 : 최저 4.0%~ (신용보증금 차등 적용)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이퍼·스톡상 가능)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인감도장, 신용증	04 자영업자,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 간편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대출자격 : 자영업자 및 직장인, 전문직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최저 5.0%~ 대출기간 : 최고 5년 특별우대 : 대출 대금차 금리 추가 인하
---	---	--	--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정기예탁금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2.85% 18개월 2.9% 3년 2.9%	최저 2.5% 단, 하루를 넘겨도 앞선예금 (수령액 100% 지급)	1년 3.1% 2년 3.2% 3년 3.3%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대인본점: 전남여고, 구도청, 할미오래, 대인리출소, 새터은행, 대성약국, 유동
총장지점: 구도청, 총파, 무리은행, 대인리출소, 남정명동, 유동, 남문고, 유동